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담당자 : 홍성주 사무관
이정민 주무관

연락처 : 055-211-2452
055-211-2454

경남도, ‘경제위기 극복, 도민 안전 강화’ 3차 추경

- 공공일자리 983억 원 등 1,850억 원… 올해 총예산 11조 원 돌파
- 경남형 뉴딜 등 261억 원 편성,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본격화
- 김경수 지사 “일찍이 경험 못한 고용위기, 민간 여력 없을 땐 공공이 받쳐줘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850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로써 올해 경남도의 예산 총규모는 11조 569억 원이 됐다.

재원은 국비 1,269억 원과 지방교부세 435억 원 등을 주요 세입으로 편성해 조달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30억 원을 차입해 충당한다.

경남도는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형 뉴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본격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코자 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선 7기 후반기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경남형 3대 뉴딜을 제시한 바 있다.

경남도의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피해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983억 원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민생경제의 기반인 일자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공공일자리 확충에는 정부 희망일자리 사업 962억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6

억 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3억 9천만 원 등 총 983억 원을 편성해 2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2)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남형 뉴딜 등 투자사업에 261억 원

이번 추경안에는 경남형 뉴딜 등 투자사업 예산 261억 원이 본격 편성됐다.

스마트 뉴딜 관련으로는 국가하천 수문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에 139억 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31억 원, 스마트시티 광역·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에 20억 원,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에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으로는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에 12억 원, 창원 국가산단에 연료전지 중심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및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에너지 산단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했다.

3)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도민 안전 강화에 192억 원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도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총 192억 원을 반영했다. 감염병 대응 관련으로는 마산의료원과 창원경상대병원의 음압병동 확충에 74억 원, 감염병 진단 시약 등 구입을 위해 3억 원 등을 편성하고, 감염병 외 재난과 안전 분야에는 도시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에 21억 5천만 원, 가축 전염병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에 17억 원 등을 편성했다.

4)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정 및 고용안정 지원에 76억 원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빠지지 않았다. 상반기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이 이미 연간 추정치인 6천억 원을 넘어 1조 원에 이른 만큼 출연금 증액분 40억 원을 편성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10억 원(신규 보증 125억 원 가능)을 편성해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2억 원 등도 편성했다.

5) 농어업, 문화예술관광 분야 등 현안사업에 124억 원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농어업 분야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에 3억 9천만 원, 재해 우려가 있는

방조제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증액 1억 3천만 원, 귀어 도시민을 위한 어촌유치 지원사업비 증액 1억 3천만 원,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1억 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4억 원,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발굴해 관광산업에 연계하는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사업에 8억 원,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3대 혁신 중에서는 사회혁신과 관련해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증액 1억 7천만 원이 주요하게 편성됐다.

김경수 지사는 제안설명을 통해 “코로나19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고용 위기를 초래했고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은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민간분야의 여력이 없을 때는 공공이 받쳐줘야 한다”고 이번 3회 추경안의 절반이 넘는 공공일자리사업 예산 983억 원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서 광역철도망을 포함한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 ‘균형발전 뉴딜’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남도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7월 14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확정될 예정이다.

- * 붙임 : 1.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2.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산담당관실 이정민 주무관(055-211-24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후반기 도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350만 경남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의회와 경남도가 함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주부터
경남도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인명 사고도 있었고,
도로 유실 등의 재산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 취약지를 더 꼼꼼히 살피고,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까지
14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5월 말 이후 지역사회 감염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 입국으로 인한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방지에 집중하면서
발생 추세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 ‘양산 부산대병원’이
영남권 전체의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되어서
감염병 대응체계가 한층 견고해졌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계속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시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후반기 도의회 출범과 함께
민선 7기 경남도정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서부경남KTX,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부산항 진해신항 등

경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를 하나하나 쌓아왔습니다.

예산 10조원 시대를 넘어
이번 제3회 추경으로 1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후반기 도정은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중심에 두고
경남형 3대 뉴딜과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뉴딜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을
경남의 여건에 맞게 더욱 확장한 것입니다.

제조업 혁신과 농어업 스마트화,
그리고 스마트 시티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환경을 지키는 것만이 아닌,
새로운 산업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생활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그린 뉴딜을 선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성과는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뉴딜로 고용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하더라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도정 3대 핵심과제인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도
속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업들도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함께
경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가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의 총규모는
11조 569억 원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1,8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 안전 분야에
1,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고용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취약 계층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민간이 여력이 없을 때는 공공이 받쳐줘야 합니다.

희망일자리사업 962억 원을 포함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총 983억 원을 투입하여
2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프렌즈 사업 등 12개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도 함께 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상반기
소상공인의 보증신청이 급증하였습니다.

상반기에만 연간 보증 추정치인 6천억 원을 넘어
1조 원의 신규 보증이 이뤄졌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도내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 10억 원을 출연해
우대보증을 통한 도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125억 원의 신규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은 없습니다.

현재 도내 음압병상은 41개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선
더 많은 음압병실이 필요합니다.

74억 원을 투입해서
마산의료원과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에
총 13개의 음압병실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단시약 등 물품 구입을 위한
3억 원을 편성해서 미리 대비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시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해
대응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예산 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남형 뉴딜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
경남형 뉴딜예산 261억 원은
스마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139억 원),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구축사업(20억 원)은

하천과 도시 분야의 재난대응체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우리 도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에 선정되었습니다.

ICT 기술을 접목해서 축산의 과학화, 자동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예산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12억 원)과
스마트 에너지 산단 인프라 구축(1.5억 원)을 통해서
그린 뉴딜의 기반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현안 사업의 속도도 늦출 수 없습니다.

농어업과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 분야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정화선 건조(23억 원)를 통해서
남해안 청정 해역을 보존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3.9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99년에 개관한 이후에 노후화된
「밀양 아리나」 개보수와 운영지원을 위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과 경남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추가 건립 관련 24억 원,
웰니스 관광사업 관련 8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려운 상황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지난 두 차례의 추경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도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균형발전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동남권을 수도권처럼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묶기 위해서는
광역철도망을 포함한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고 시급합니다.

‘균형발전 뉴딜’은 경남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의회와 협력해 나가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14일
경상남도지사 김 경 수

1 편성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추 경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증감률 (%)	비 고
계	110,569	108,719	1,850	1.70	
일 반 회 계	102,305	100,459	1,846	1.84	
특 별 회 계	8,264	8,260	4	0.06	

2 분야별 편성내역

○ 일반회계 세출규모 : 10조 2,305억 원

- ①사회복지 43% ②일반행정 11% ③농림수산 10%

(단위 : 억 원)

